



- ① 언론 뉴스, 사과값 잡으려고... 지난달 망고·파인애플 수입 “역대 최대”
- ② 한국무역협회, “K-뷰티 열풍에 가정용 미용기기 수출 역대 최대”
- ③ 관세청,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 발간
- ④ 관세청, K라면 수출 ‘월 1억달러’ 첫돌파... 불닭인기에 올해 11억달러도
- ⑤ 산업부, 한·칠레 FTA 제9차 개선 협상... “원부국 칠레와 협력 강화”
- ⑥ 산업부, 인도네시아, CPTPP 가입 희망 의사 밝혀... “국내규정과 70% 일치”
- ⑦ 무역위원회, 석화업계 ‘신음’에... 정부, 중국산 스티렌모노머 덤핑 조사 착수
- ⑧ 해수부, 수산식품 수출 어려움 ‘비관세장벽 대응센터’가 돕는다

FTA 동향 ①

사과값 잡으려고... 지난달 망고·파인애플 수입 “역대 최대”

지난달 파인애플과 망고 수입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바나나와 오렌지도 약 5년 만에 가장 많은 양이 국내에 반입됐다. 가격 강세를 보인 사과와 배 등 국내 과일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파인애플 수입량은 작년 동기 대비 44.7% 증가한 8,686 톤으로 1분기 대비 사상 최대의 양을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3월 기준 국내 파인애플(HS 0804.30호) 수입량 상위 3개국

단위: 톤

순번	국가명	2023년 (3월)		2024년 (3월)	
		수입증량	수입증감률	수입증량	수입증감률
	총계	5,727	14.9	8,686	44.7
1	필리핀	5,715	9.8	8,650	51.3
2	베트남	1	-45.0	23	3,074.4
3	태국	11	-2.7	14	20.0

출처: Kita 수출입통계



망고도 최대치를 기록했다. 수입량은 작년 동월보다 114.0%의 상승폭을 나타냈으며, 특히 태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을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4년 3월 기준 국내 망고(HS 0804.50-2000호) 수입량 상위 3개국

단위 : 톤

순번	국가명	2023년 (3월)		2024년 (3월)	
		수입중량	수입증감률	수입중량	수입증감률
	총계	2,851	-28.2	6,010	114.0
1	태국	914	-45.6	5,184	467.4
2	페루	1,735	-13.1	506	-80.9
3	베트남	202	-21.1	320	58.5

출처 : Kita 수출입통계

바나나와 오렌지 수입도 대폭 늘었다. 지난달 바나나 수입량은 작년 동월 대비 27.7% 증가한 3만 8404t이다. 수입액은 3813만 4000달러다. 각각 4년 10개월, 5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갱신한 것이다.

2024년 3월 기준 국내 바나나(HS 0803호) 수입증감률

단위 : 금액기준 천불 / 중량기준 톤

순번	국가명	2023년 (3월)				2024년 (3월)			
		수입 중량	증감률 (중량)	수입 금액	증감률 (금액)	수입 중량	증감률 (중량)	수입 금액	증감률 (금액)
	총계	30,083	-3.5	28,775	2.6	38,404	27.7	38,134	32.5
1	기타	30,083	-3.5	28,775	2.6	38,404	27.7	38,134	32.5
2	플랜틴	0	0.0	0	0.0	0	-100.0	0	0.0

출처 : Kita 수출입통계

\* 기타 : HS 0803.90호

\* 플랜틴(plantin) : HS 0803.10호

지난달 오렌지 수입량과 수입액은 작년 동월보다 1.7%, 8.5% 각각 증가해 3만 8028t과 8388만 8000달러로 2021년 3월 이후 3년 만의 최대였다.



2024년 3월 기준 국내 오렌지(HS 0805.10호) 수입증감률

단위 : 금액기준 천불 / 중량기준 톤

순번	국가명	2023년 (3월)				2024년 (3월)			
		수입 중량	증감률 (중량)	수입 금액	증감률 (금액)	수입 중량	증감률 (중량)	수입 금액	증감률 (금액)
1	오렌지	37,377	23.1	77,327	17.9	38,028	1.7	83,887	8.5

출처 : Kita 수출입통계

수입과일이 국내에 많이 들어온 만큼 가격도 하락했다. 16일 농산물유통종합정보 시스템 농넷에 따르면 파인애플 1개(상품) 평균 소매 가격은 6560원으로 지난달 대비 9.9% 내렸고 작년과 비교하면 7.7% 낮은 수준이다.

바나나(상품) 100g의 전날 소매가격도 269원으로 전월보다 17.5%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18.7% 낮은 것이다.

또 오렌지(네이블 미국·상품) 10개의 전날 소매가격은 1만5000원으로 전월 대비 10.1% 내렸다. 작년보다는 5.9% 낮다. 망고(상품) 1개의 전날 소매가격은 3658원으로 전월보다 1.9% 오르긴 했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32.9%나 저렴하다.

과일 수요가 분산되자 사과 가격도 최근 하락 추세다. 16일 사과(상품) 10개 평균 가격은 2만5020원으로 지난달 평균 2만9500원보다 약 4000원 내렸다. 그러나 여전히 작년 4월 1만9000원~2만원대로 형성된 가격보다는 비싼 편이다. 배 가격은 여전히 높다. 배(신고·상품) 10개 가격은 4만7110원으로 전월보다 10.0% 올랐고 작년과 비교하면 73.1%나 높은 수준이다.

“K-뷰티 열풍에 가정용 미용기기 수출 역대 최대”



사진 : 한국연합뉴스

올해 들어 4월까지 가정용 미용기기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지난 1~4월 가정용 미용기기 수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5.0% 늘어난 6천 700만달러로 집계돼 1~4월 기준 가장 많았다고 10일 밝혔다.

가정용 미용기기에는 전동 피부마사지기를 비롯해 LED 마스크, 두피관리기 등 소형 전기제품이 포함된다. 작년 연간 최대 수출 실적에 이어 올해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가정 내 미용관리 수요가 늘었고 'K-뷰티' 인기와 함께 기능, 품질을 토대로 수출처도 넓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2024년 1~4월 모두 91개국에 수출돼 같은 기간 가장 많은 나라로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이 가장 많이 수출된 국가는 미국(46.5%)이다. 이어 일본(16.0%), 홍콩(13.4%), 싱가포르(5.7%) 순이었다.

국가별 수출액 현황

단위 : 백만달러, 전년동기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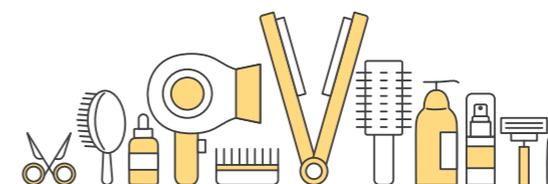
순위	2020년			2021년			2022년		
	국가	금액	증감률	국가	금액	증감률	국가	금액	증감률
1위	일본	14	115.7	일본	26	85.4	일본	28	11.1
2위	홍콩	12	37.2	중국	18	74.7	홍콩	15	15.5
3위	중국	10	△46.9	홍콩	13	6.4	미국	12	121.1
4위	미국	3	△34.6	미국	5	104.1	중국	9	△50.5
5위	베트남	2	5.8	싱가포르	3	51.0	싱가포르	4	28.0
기타	85개국	19	△9.4	97개국	20	6.8	101개국	22	8.7
	전체	59	△2.9	전체	85	42.5	전체	89	5.3

순위	2023년			2024년 1~4월		
	국가	금액	증감률	국가	금액	증감률
1위	미국	27	135.2	미국	31	650.4
2위	일본	22	△23.0	일본	11	51.7
3위	홍콩	21	43.4	홍콩	9	89.8
4위	중국	17	87.3	싱가포르	4	96.2
5위	싱가포르	6	55.3	중국	4	97.1
기타	98개국	22	2.4	86개국	9	14.9
	전체	115	29.0	전체	67	145.0

출처 : 관세청

\* 밑줄은 해당 기간별 역대 최대 수출액을 나타냄

관세청 관계자는 “작년부터 미국이 일본을 제치고 최대 수출처로 부상했다”며 “미국을 포함한 주요 상위국 모두 큰 폭의 수출 증가세를 보인다”고 말했다.



##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 발간

관세청은 4월 25일, 자동차 부품의 품목분류\*(HS) 기준과 자동차 산업 최신 동향을 담은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발간하였다.

\* 품목분류(HS : Harmonized System)란 세계관세기구(WCO :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정한 관세, 무역, 통계 등 분야에서 세계 공통으로 사용되는 상품 분류제도로서 6자리 품목번호(HS Code)가 협약을 통해 규정되고 6자리 아래 품목번호는 나라별로 상황에 맞게 운영(한국 10단위, EU 8단위, 미국 10단위 등)되고 있음

자동차 산업의 수출입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겪을 수 있는 품목분류 불확실성으로 거래의 관세 추징 혹은 장기간의 물품 통관 지연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완화·방지하기 위함이다.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산업으로, 기술 발전과 첨단 부품 출현으로 품목분류가 더욱 복잡해지고 국가 간 분류 이견도 많아 지침서(가이드북)의 중요성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분야이다.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은 크게 세 부분으로 제1·2부에서는 실제 거래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일반 내연기관 부품분 아니라 전장 부품, 친환경차 부품 등 총 242종에 대한 품목번호와 해당 물품별 사진 및 설명을 상세히 수록해 품목분류 기준을 명확히 했으며,

제3부에서는 친환경 차량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함께 자율주행, UAM (Urban Air Mobility : 도심항공모빌리티) 등 미래 자동차의 기술 동향과 발전 방향 등을 수록했다.

관세청은 주요 수출 산업별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관세법령정보포털에 이북(e-book)으로도 게시해 모든 국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 본문 (예시)

제1장 | 동력발생장치

### 2. SPARK PLUG

HSK 2022	8511.10-9000	분류근거	품목분류3과-806
결정세번	8511.10-9000	시행일자	2015-03-25

#### 1. 물품설명

- ◆ 점화코일로부터 고전압을 받아 실린더 내 연소를 일으키는 점화장치로 엔진 실린더 헤드에 장착됨  
- 구성요소 : 하우징, 애자, 중심전극(구리, 니켈), 플러그팁(이리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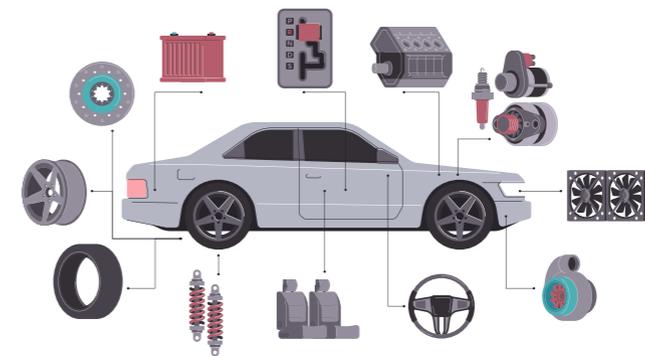


<물품 사진>

####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1호의 용어에 “불꽃점화식이나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시동용 전기기기(예:점화용 자석발전기·자석발전기·점화코일·점화플러그·예열플러그·시동전동기), 내연기관에 부착되는 발전기와 개폐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 같은 호 해설서에 “이호에는 자동차용·항공기용·선박용과 이와 유사한 것 또는 정치기관용의 여하를 불문하고 어떠한 종류의 내연기관의 시동용 또는 점화용의 전기기기가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 해당 자료를 포함한 표준해석 지침은 관세법령정보포털 누리집(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 세계 품목분류(HS) > 품목분류(HS) 가이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FTA 동향 ⑤

### K라면 수출 '월 1억달러' 첫 돌파... 불닭인기에 올해 11억달러도



사진 : 한국연합뉴스

한국의 라면 수출 금액이 월간 기준 1억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했다. 19일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라면 수출액은 1억859만달러(약 1천470억원)로 작년 동월(7천395만달러)보다 무려 46.8% 증가했다.

#### 2024년 우리나라 라면(HS 1902.30-1010호) 수출금액기준 상위 5개국

단위 : 금액기준(천불) / 증감률(%)

순번	국가명	2023년 (4월)		2024년 (4월)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총계	73,951	28.9	108,590	46.8
1	중국	10,115	3.1	21,797	115.5
2	미국	12,625	76.7	16,588	31.4
3	네덜란드	5,306	154.8	8,450	59.2
4	일본	4,774	-7.1	5,646	18.3
5	영국	2,502	49.5	5,170	106.7
...	이하 생략				

출처 : Kita 수출입통계

지난달 라면 수출액은 기존 월 최대 기록인 지난 2월의 9천291만달러를 훌쩍 뛰어넘었다. 라면 수출 금액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매년 늘어났으며 올해

10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9억5천240만달러로 역대 가장 많았으나, 10억달러에는 못 미쳤다. 그러나 올해는 현재 추세라면 11억달러를 웃돌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면은 코로나19 이후 저장이 쉬운 간편식품으로 수요가 증가했다.

한국의 라면 수출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4억6천700만달러)과 비교하면 4년 만에 2배로 성장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첫해인 2020년 라면 수출액은 29.2% 급증했으며 이후에도 2021년 11.7%, 2022년 13.5%로 꾸준히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라면 수출액 증가폭은 24.4%로 커졌다. 올해 1~4월 라면 수출액은 3억7천886만달러(약 5천억원)로 작년 동기 대비 34.4% 늘어 수출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 2024년 우리나라 라면(HS 1902.30-1010호) 수출금액기준 상위 10개국

단위 : 금액기준(천불) / 중량기준 톤 / 증감률(%)

순번	국가명	2023년(1~12월)				2024년 (4월)			
		수출 금액	증감률 (금액)	수출 중량	증감률 (중량)	수출 금액	증감률 (금액)	수출 중량	증감률 (중량)
	총계	952,403	24.4	244,207	13.1	378,857	34.4	94,310	27.5
1	중국	215,449	14.0	62,479	3.2	65,597	9.5	19,443	11.8
2	미국	126,588	66.2	27,181	41.1	63,697	83.0	12,327	51.5
3	네덜란드	60,670	102.1	13,567	81.2	28,078	53.3	6,287	50.1
4	일본	57,970	-4.4	18,924	2.7	22,883	10.8	8,085	26.4
5	말레이시아	44,702	51.4	10,002	39.3	17,253	21.5	3,935	23.3
6	필리핀	36,921	17.8	10,334	9.9	15,942	31.8	4,226	26.5
7	영국	37,594	52.6	7,644	35.6	15,921	39.1	3,242	32.1
8	태국	37,611	21.8	8,933	14.0	14,764	50.0	3,414	45.0
9	호주	35,670	33.4	9,940	27.6	14,024	27.7	3,808	18.9
10	대만	31,667	4.0	9,074	-3.5	11,149	27.5	3,275	24.5
...	이하 생략								

출처 : Kita 수출입통계

같은 기간 라면 수출 중량은 9만4천310t(톤)으로 27.5% 늘었다. K팝 스타들이나 한국 드라마, 영화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 한국 라면의 인지도는 높아지고 있다. 또 고물가 상황에서 간편한 한끼 식사로 라면에 대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FTA 동향 ㉔

**한·칠레 FTA 제9차 개선 협상…  
“자원부국 칠레와 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선하기 위한 제9차 공식 협상이 4월 2~4일(현지시간)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한국 측 안창용 산업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과 파블로 유리아 칠레 외교부 양자경제국장 직무대행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50여명의 양국 대표단이 대면 및 화상으로 협상에 참여한다.

한·칠레 FTA는 한국이 체결한 첫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04년 4월 1일에 발효돼 20년을 맞았다. 이후 양국 간 교역 규모는 약 5배로 늘어나면서 양국 경제협력 관계가 발전했다.

한국과 칠레 양국은 교역·투자 협력 관계를 보다 심화하고, 공급망·에너지·원자재·디지털 경제·지식재산권 등 현대화된 통상 규범을 새로 협정문에 반영하기 위해 2018년부터 개선 협상을 진행 중이다.

양국 통상 당국은 올해 한·칠레 FTA 발효 20주년을 맞아 이번 9차 협상에서 실질적 협상 진전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안 정책관은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양허와 함께 에너지·광물, 지재권,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리튬, 구리 등 세계적 자원 부국인 칠레와의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FTA 동향 ㉕

**인도네시아, CPTPP 가입 희망 의사 밝혀…  
“국내규정과 70% 일치”**

인도네시아가 일본이 주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5월 2일 기준, 인도네시아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은 전날 성명을 통해 인도네시아가 더 많은 투자 유치를 위해 CPTPP 가입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CPTPP의 30개의 조항을 분석한 결과 인도네시아의 기존 규칙과 약 70%가 일치하는 내용이라며 “가입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도네시아가 여러 국제 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상호 호혜적인 협력 기회가 더 많이 열리고 투자가 촉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CPTPP는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 12개국이 가입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다자간 FTA로, 한국 정부도 가입을 추진 중이다.

아이르랑가 장관은 또 지난달 30일 영국 런던을 방문해 앤 마리 트레블리안 인도·태평양 담당 부장관과 회담 때도 CPTPP와 인도네시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트레블리안 부장관은 인도네시아의 CPTPP와 OECD 가입을 지지하고 이를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10월 선진국 진입 관문의 하나로 꼽히는 OECD 가입을 위한 ‘OECD 가입 절차 개시’를 요청했으며 지난 2월부터 공식 절차에 돌입했다.

인도네시아가 OECD에 가입하게 되면 동남아시아 최최이자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한국에 이어 3번째 가입국이 될 전망이다.

FTA 동향 ①

**석화업계 ‘신음’에…  
정부, 중국산 스티렌모노머 덤핑 조사 착수**



사진 : 여천NCC 당사 홈페이지

정부가 저가 공세를 이어가는 중국산 스티렌모노머(SM)에 대한 덤핑 조사에 착수한다. 중국의 밀어내기식 덤핑 공세에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피해를 호소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4월 9일 공보에 중국산 SM에 대한 덤핑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공고했다. SM은 가전에 들어가는 합성수지, 합성고무 등을 제조하는 데 쓰이는 필수 석유화학 원료다.

무역위의 덤핑 조사는 한화토탈에너지스와 여천NCC가 지난달 22일(3월 22일) 중국산 SM이 과도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고 있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무역위는 조사 대상에 오른 중국산 SM 수입·제조 업체 4곳에 덤핑 조사 질의서를 발송, 3주 안에 조사 참여 신청서를 무역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무역위는 이와 함께 국내 생산자, 수입자, 유통업자 등 이해관계자 조사를 통해 중국산 SM 덤핑으로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무역위는 질의서 조사에 이어 현지 조사, 공청회, 이해관계인 회의 등을 거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덤핑 조사는 통상 10~12개월이 소요된다. 무역위의 덤핑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가 반덤핑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국내 석유화학 업계는 중국 기업들의 증설로 인한 공급 과잉과 경기 부진에 따른 수요 둔화가 겹치며 고전하고 있다. 이에 LG화학은 지난해 충남 대산 SM 공장의 가동을 멈춘 데 이어 최근 전남 여수 SM 공장 가동을 중단했고, 롯데케미칼은 중국 등 일부 해외 법인과 생산 기지를 정리하는 등 사업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FTA 동향 ③

**수산물 수출 어려움 ‘비관세장벽 대응센터’가 돕는다**

해양수산부는 5월 2일부터 수산물 수출기업을 위한 ‘수산물 비관세장벽 대응센터’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주변국의 수산물 무역분쟁 장기화와 해외 수산물 수입 규제 강화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수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이 센터를 운영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분석센터에 설치되는 비관세장벽 대응센터는 수산물 비관세장벽에 대한 유형별 자료를 바탕으로 수산물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세, 통관, 위생안전, 무역기술장벽, 수입규제, 제조기업 등록, 인증 등 부문별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해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한 주요 현안에도 대응한다.

수입국의 비관세장벽은 대표적인 무역장벽으로 나라별로 다른 통관 규제의 명확한 기준과 기간 등을 파악하기 어렵고 시행 이전에는 예측이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최근 미국 정부의 러시아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등 예측 불가능한 무역환경으로 인해 수산물 수출업계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무역과 관련된 위생 안전, 통관 규제, 국제 인증 등 다양한 비관세장벽이 강화되는 추세다.



사진 : 한국무역협회